

“새로운 세상을 윤석열정권 퇴진 광장에서 만들어가자”

- 전국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10만여 명 서울 세종대로 집결
- 11.9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개최
- 11.20 2차 총궐기, 12.7 3차 총궐기 이어질 것

오늘(9일)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10만여명이 참여한 1차 퇴진총궐기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승례문 앞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16개 산업별연맹은 서울 도심 14곳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부정.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각기 다른 경로로 행진을 하면서 본 대회 장소로 이동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퇴진만이 살길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면서 “헌법유린 민주 파괴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1월 20일 2차 총궐기와 12월 7일 3차 총궐기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퇴진광장을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분노한 시민들은 이 나라 대통령이 김건희인지 명태균인지 묻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제멋대로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끝장토론은 이 정권의 끝을 보여주었다. 권력 주체인 국민들이 틀렸다! 바꾸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답했다”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자리에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의료와 돌봄, 에너지와 교통 공공성의 강화로 기후위기와 인구소멸을 극복하자”며 “새로운 세상을 윤석열정권 퇴진 광장에서부터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2. 대회 개요

- 제목 : 11.9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개최
- 일시 : 2024년 11월 9일(토) 16시
- 장소 : 서울 세종대로 일대, 송례문 앞 본무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3. 대회 순서

시간	순서	내용
15:45	대오 맞이 공연	- 노래 문선대, 풍물 문선대 공연
16:00	개회선언	- 사회자 고미경 민주노총사무총장 - 새내기 조합원 개회선언 김대호(금속노조), 김명재(건설산업연맹), 양정화(민주일반연맹), 이동교(화석식품노조), 이희승(공공운수노조), 최상미(보건의료노조), 최유하(대학노조)
16:08	민중의례	
16:16	기조영상	- 참지말고 몰아내자! 윤석열정권 퇴진 사회대전환 쟁취
16:19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6:29	공연	- 조합원 공연단 노래 2곡 (못살겠다 내려와 / 세상에 지지 말아요)
16:36	투쟁사1	- 방송장악 저지, 언론자유 쟁취 (언론노조 박상현 KBS본부장) - 의료대란 해결, 의료공공성 쟁취 (공공운수노조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 노동탄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김형수 거통고지회장) - 30일간 파업투쟁! 끝까지 연대, 승리 (보건의료노조 차봉은 노원을지대병원 지부장)
16:45	영상	- 고쳐쓸 수 없는 정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16:47	투쟁사2	-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유매연 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전봉준 실천단)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선재원 상임의장
16:54	결의문 낭독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 이도흙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개혁특별위원장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7:00	폐회선언	- 폐회 선언, 민중의 노래 제창

4. 사전 대회 개최 현황

가맹조직	시간	장소
공공운수노조	14:00	통일로 (서대문사거리-경찰청)
화섬식품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13:00	서대문 농협중앙회
사무금융노조	14:20	서대문 농업박물관
건설산업연맹	13:30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서비스연맹	13:30	삼일대로(서울고용노동청앞)
공무원노조	14:00	남대문로 (을지로입구-광교)
보건의료노조	14:30	청계천-한빛광장
대학노조	13:00	종각사거리 (보신각)
전교조	13:30	종로1가(SC제일은행)
언론노조	14:00	서울시청 동편
전교조	14:30	프레스센터 앞
정보경제연맹	14:30	
민주여성,교수,비정규교수노조	14:30	소공로(프라자호텔)
지역본부	14:30	
이주노조	14:30	전태일동상 앞
민주일반연맹	13:50	서울역11번 출구

5 주요 구호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
- 윤석열 퇴진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이다!
- 우리가 전태일이다. 퇴진광장을 열어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 윤석열정권 퇴진시키고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자권리 보장하라!
-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방송장악 중단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 의료대란 해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 연금개혁 중단하고 노후생계 보장하라!
-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 미국·일본에 굴종말고 전쟁연습 중단하라!

[붙임]

1.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2. 개회선언
3. 투쟁사 - 언론노조 박상현 KBS본부장
4. 투쟁사 - 공공운수노조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5. 투쟁사 - 금속노조 김형수 거통고지회장
6. 투쟁사 - 보건의료노조 차봉은 노원을지대병원 지부장
7. 투쟁사 -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유매연 대표
8. 투쟁사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전봉준 실천단)
9. 투쟁사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선재원 상임의장
10.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결의문

[붙임] 1.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나라가 엉망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민생은 도탄이고, 접경지 주민들은 전쟁 같은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건희인지 명태균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제멋대로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을 빼앗은 정권입니다. 건설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은 정권입니다. 타 임오프와 회계공시로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원청교섭과 손배폭탄을 막자는 노조법을 거부하여 노동현장을 파괴해온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노동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의정갈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들이 키를 잡은 의료개혁은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입틀막 정권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연금개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정권은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자들이 역사정의를 말하는 기막힌 현실을 용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고자 서민의 복지를 축소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은 굴종과 제압의 대상입니다.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는 가짜뉴스고 반국가선동입니다. 법치는 노동자 탄압의 도구일 뿐 자신과 가족은 법위에 군림합니다. 그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이들 전 대통령의 끝장토론은 이 정권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틀렸다! 바꾸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못하겠다! 안하겠다! 답했습니다. 이제 나가라! 물러나라! 퇴진하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자리에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세웁시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실질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쟁취합시다. 의료와 돌봄, 에너지와 교통 공공성의 강화로 기후위기와 인구소멸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세상을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에서부터 만들어갑시다.

전두환의 군사독재보다 더욱 악랄한 검찰독재 정권

이명박의 비지니스 프랜들리보다 더욱 탐욕스러운 부자퍼주기 정권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더욱 파렴치한 국정파괴 정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우리의 힘으로 멈춥시다.

노동자 민중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세웁시다.

[붙임] 2. 개회선언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너는 나의 나다.

스물두살 평화시장 미싱사 전태일이,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 민주노총 고미경 사무총장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은 파탄 난 절망의 시대.

국민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해야 하는 도탄의 시대.

- 김대호 (금속노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서슬퍼런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는 야만의 시대.

120만 조합원이 전태일이 되어, 세상을 뒤집자!

- 김명재 (건설노조)

참지 말고 몰아내자.

열사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 2024년의 시대정신은 바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다.

- 양정화 (민주일반노조)

반민주 반노동 반평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불평등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 이동교 (화섬노조)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절망을 끝장내자.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내가 전태일이다. 우리는 120만 전태일이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너는 나의 나다.

- 최상미 (보건의료노조)

120만 전태일이 윤석열 퇴진 광장을 더 크게, 더 넓게 열어 냅시다!

동지들! 힘찬 '민주노총가'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

- 최유하 (대학노조)

하겠습니다!

- 다함께

[붙임] 3. 투쟁사 - 언론노조 박상현 KBS본부장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의 표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KBS가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지금 KBS는 국민이 아닌 용산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KBS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모두 사라졌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불방됐습니다. 광복절에는 일본국가인 기미가요를 틀고 독재자를 미화한 '기적의 시작'을 방송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도 검증 없이 받아쓰기만 하면서 김건희 의혹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대로 된 사장을 뽑아야 한다며 파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KBS 차기 사장 후보자가 된 건 용산에 정성을 다하는데 앞장선 '파우치' 박장범입니다. 김건희가 받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불러 KBS를 전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장범이 다음 KBS 사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KBS 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동지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법원에서 사장 선임 중단을 따질 재판이 열립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원이 빠르고 합당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QR 코드를 찍어 꼭 탄원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당장 안 되시면 나중에 언론노조 KBS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받아 KBS를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4. 투쟁사 - 공공운수노조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우리는 왜 국가를 만들어서 이려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인간은 이 모든 제도와 법, 도시, 국가를 만들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만들고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습니까?

더 잘 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하고, 아프고, 불행하다면 그것들을 왜 그냥 두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의료는,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는 정부와 기업에게는 돈벌이 수단, 의사 집단에게는 자신들이 공급과 중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의료를 다시 국민의 것으로 되찾아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히려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은 축소하는 민영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지역·필수의료에 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국공립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시장의료를 공공의료로 전환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저출생 극복이라는 4+1 개혁은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될 경우 우리의 삶은 시장의 상품이 됩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외칩시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파느냐고!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붙임] 5. 투쟁사 - 금속노조 김형수 거통고지회장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51일 파업 투쟁에 윤석열정부와 연결된 민간인 명태군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투쟁 당시 윤석열은 도어스테핑에서 “국민과 정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 윤석열이 기다린 것은 아마도 명태군의 보고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내린 구형은 저에게 4년 6개월,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유죄안 당시 부지회장 3년 포함해 전체 구형량이 20년 4개월 벌금이 3300만원 손배 청구액은 아시다시피 총 480억이 넘습니다.

빼앗아 간 임금, 돌려주기로 했던 임금 돌려달라는 하청노동자에게 윤석열정부와 윤석열의 검찰. 그리고, 한화오션이 내린 철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금속노조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를 이용해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고, 금속노조 속에 회계공시라는 cctv를 설치해 금속노조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통고 투쟁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6. 투쟁사 - 보건의료노조 차봉은 노원을지대병원 지부장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뛰어나간 병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묵묵히 헌신하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무급휴가, 휴직에 내몰렸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희생만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원을지대병원은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2017년 파업당시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과 타 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파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규직으로 안전하게 환자를 돌보기 위한 파업입니다.

직원이 존중받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파업투쟁이 오늘로 31일째인데 노원을지병원의 진짜 주인인 을지재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원을지병원은 을지재단의 모(母)병원입니다. 모병원의 희생으로 병원을 확장하더니 이제는 필요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판 의료계 고려장입니다.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병원의 현실, 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허울뿐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필수,지역,공공의료가 강화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파업 투쟁 반드시 승리하여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올바른 병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

[붙임] 7. 투쟁사 -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유매연 대표

여러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단 하루라도 더 버티실 수 있습니까? 전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청년의 삶은 물론 국민의 삶을 돌볼 생각은 없고, 대국민 담화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거짓말과 변명 뿐이었습니다.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고 하지만, 청년의 죽음에 자기 사람의 잇속만 챙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하지만 지난 3년간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미래가 막막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가 없어진 수준입니다.

자영업자는 줄폐업에 나서고 청년 쉬었음 인구는 50만명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더 버티고 싶지 않아 학교에서부터 대학생들의 퇴진 요구를 모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막혔습니다. 국민투표 캠페인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직원이 몰려와 학내 정치활동 금지 학칙을 들이밀며 쫓아냈습니다.

대자보를 붙이면 그건 허락해 주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대자보를 붙이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떼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학내 정치활동 금지 학칙 위반이라며 경찰이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유신 독재정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대학생들의 어떤 이야기가 두려운 것입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놓고,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놓고 국민의 목소리는 왜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국민들의 이야기가 두렵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단 하루도 기다리지 맙시다. 대통령이 없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제부터 우리 매주 퇴진광장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립시다. 대통령이 기대하는 남은 2년 반은 이제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퇴진시킵시다!

[붙임] 8. 투쟁사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전봉준 실천단)

노동자 동지들께 여쭙겠습니다.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 작물마다 다 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을 키웠으니 농민들 죄다 부자 되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농민들 중에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온에 말라 죽고, 폭우에 쓸려가고, 그나마 남은 건 버벌구가 다 빨아먹어서, 내다 팔 것 하나 없습니다. 게다가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농민만 잡는 맹목적인 수입의존 정책에 빗만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치솟는 물가가 농산물가격 때문이라며 농민을 탓합니다. 떨어지는 쌀값은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다며 또 농민을 탓합니다. 올라도 농민 탓, 떨어져도 농민 탓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제대로 된 대책은 전무합니다. 쌀값 폭락도 무대책입니다. 물가 핑계로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서 우리 생산 기반을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다시 농민들이 나서겠습니다. 130년 전 갑오농민군처럼, 9년 전 백남기 농민처럼, 다시 농민들이 낡은 세상을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박근혜정권 끌어내린 전봉준투쟁단의 이름으로 윤석열정권 퇴진이라는 천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붙임] 9. 투쟁사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선재원 상임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참담한 윤 통의 기자회견을 보며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윤 정권에 일말의 기대도 없음을 확신했다. 윤석열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온갖 반민중, 반민주, 반헌법, 반역사적인 민주주의 퇴행은 물론, 대통령과 부인일가 비리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이에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성명과 집회,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반노동 인사가 노동부 장관으로, 반통일 인사가 통일부 장관으로, 반환경 인사가 환경부 장관으로, 반인권 인사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는, 심지어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던 이 기막힌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실존을 위협했다.

이태원과 오송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와 고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나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여기에 어디 공정과 상식이 있는가?

최근 폭로되고 있는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의 여론조작, 선거와 이권에의 개입은 공정과 상식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윤 통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상실했기에 당장 퇴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것이 이 상황이라면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온 힘을 다 썼으면 남은 힘도 없을 터이니 이제 그만 퇴진하라!

당신이 항상 섬기고 있다는 시민 절대다수가 대통령 자격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과 현 정부의 존재자체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 교수·연구자, 그리고 노동자, 시민은 윤 통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붙임] 10.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결의문

우리는 오늘, 윤석열정권 퇴진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역사적 대장정에 나선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가 보장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다.

민심을 거역한 권력! 시대를 거스르는 권력!은 끝끝내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헌법 유린! 민주 파괴!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평화가 곧 민생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평화파괴,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한국청년연대 김식 상임대표

친일역사쿠데타! 굴욕외교! 이제는 끝장내자!

항일의 역사! 영토!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이도흙 사회개혁특별위원장

노동자의 존엄과 기본권을 쟁취하자!

노동조합 파괴, 중대재해 무책임, 실질임금 삭감, 노동자 생존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 내리고 쌀값은 올리자!

농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무너진다.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불평등을 타파하고 민중생존권을 지키자! 부자감세, 민생파탄!

노동자, 농민, 빈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공동대표

지긋지긋한 공안탄압 박살내자! 너희들의 위기는 공안탄압으로 탈출할 수 없다!

민주세력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4.19 혁명, 5.18 민중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박근혜 퇴진촛불!

한국사회 변곡점마다 우리 민중은 들불처럼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우리 모두가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자.

반민중권력을 퇴진시킨 자리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모든 현장, 거리 곳곳에서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를 더욱 힘차게 전개해 민심의 분노를 모으고 확산

시키자. 11월 20일 2차 총궐기! 12월 7일 3차 총궐기!에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더 큰 퇴진광장을 열

어나가자. 참지말고 몰아내자!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노동, 민생, 민주, 평화의 새로운 세상을 우

리의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2024년 11월 9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